

7일 Market Index			
코스피	2609.58	코스닥	811.92
	(+33.38)		(+4.89)
금리	3.286	환율	1327.80
	(-0.006)		(+0.20)



족쇄풀린 JY, 해외 보폭 확대 지배구조 등 ‘뉴삼성’ 가속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부당합병’ 꼬리표를 떼내면서 경영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삼성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배구조 개편 등 해묵은 과제 해결에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6일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첫 출국이다. 이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등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현지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삼성을 이끌기 시작한 2014년부터 구속 수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명절 연휴마다 해외 현장 경영을 지속해왔다.

이재용, 설에도 해외 현장경영 행보 위기의 삼성 ‘터닝포인트’ 기대감

이달 이사회사 등기이사 안건 결정 경영 과제 해결 후 선임 가능성도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JY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명절을 타지에서 보내는 현지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격려 활동도 병행했다.

세계에서는 이 회장이 앞으로 글로벌 경영 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해외 출장에 제약이 컸던 상황, 명절 연휴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JY네트워크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기술 확보는 물론, 네트워크 장비와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수주를 이끌어내는 등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왔던 만큼, 위기에 빠진 삼성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책임 경영 시작할까

세계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사내 이사에 오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임명됐지만, 사법리스크를 겪으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끝난 후에는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등기 이사는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경



영 사항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미 이 회장이 최고경영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등기 이사가 되면 공식적으로 회사 경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4대 기업 중에서는 이 회장이 총수 중 사실상 유일한 미등기 이사다. 그동안 사법리스크와 함께 취임을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으로 유죄를 받았고, 부당 합병 재판에서도 특경법으로 기소 당하면서 등기 이사 자격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제한이 없다.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022년 특별 사면을 통해 취업 제한에서 벗어났고, 이번 1심 재판에서도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걸림돌을 해결했다. 행동주의 펀드 등이 이 회장 복귀에 문제를 삼을 요인을 해결한 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책임 경영을 위해 이 회장 등기 이사 선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명분이나 실리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당초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탓에 무리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가운데,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왔는데도 항소까지 하기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으로, 이번달 중순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적 반등 시급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화려하게 등기 이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삼성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 이 회장이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는 과제를 해결한 후에 등기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에서 15억 원 수준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소니 등에도 영업이익을 역전당했다. 반도체 1위는 물론 스마트폰 출하량 1위까지 뺏겼고, 메모리 점유율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력 사업 경쟁력에 위기감이 커졌다.

미래 사업도 불투명하다. ‘반도체 비전 2030’ 핵심 과제인 파운드리 사업 점유율 확대도 오히려 TSMC에 밀려 후퇴했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사업에서도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생성AI의 예술시장, 연평균 40.5% 증가

창작 vs 합성물, 갑론을박 지속

AI, 새 창작 도구로 다양한 시도
저작권 논란 속 상품화 이르러
전자업계는 미디어아트로 호응
미술가들도 한계-가능성 시험

#.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작품이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예술의 정의와 AI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죽음”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그림의 작가인 제이슨 M. 앨런 또한 NYT와 인터뷰에서 “AI가 이겼고, 인간이 패배했다”고 냉소적인 답변을 했다.

AI를 활용한 그림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실험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AI를 새로운 예술 창작의 도구로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며 상품화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AI 작품은 저작권 논란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시장은 형성하고 있다.

7일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2억1200만 달러 수준이던 생성 AI의 예술 시장 규모가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가트너 조사 결과 AI 참여 작품 비중은 2020년 1%에서 2025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LG전자가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인간과 AI 기술 사이의 소통과 공감을 담은 예술 작품을 올레드 TV로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올레드 에보(evo)를 통해 AI가 그린 미디어아트 감상은 물론, AI가 올레드 화면(왼쪽)을 통해 질문하면 마이크로 대답하며 소통할 수 있다. /LG전자

AI 예술의 성장에 전자업계는 호응하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AI 작품을 자사 제품에 탑재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뉴스 뮤지엄 을지로점에서 공동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회 ‘터치 더 리얼’을 열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북4시리즈의 AI 기능을 바탕으로 제작된 미디어아트를 소개하는 전시회다. 갤럭시 북4시리즈는 인텔의 첫 AI 프로세서이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코어 인텔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미디어 아트는 물론, 에세이와 디자인 작품까지 폭넓게 모았다.

배태원 인텔코리아 부사장은 “생성 AI 기술의 가치를 일반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삼성과 인텔이 함께 고민해왔다”며 “AI 기술이 예술가의 창의적 표현 폭을 넓히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실험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공유한 것이 이번 전시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달리 기성 미술가들은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실험하며 AI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AI 작품 전시회 ‘NFT ENERGY’은 미래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올해 10대 제조업체 민간투자 110조

안덕근 장관, 산업투자전략 회의
현대차 등 10대 기업 CEO 참석
투자금액 지난해 대비 10% 늘어

올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10대 제조업 민간 투자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원활한 투자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 오후 대한상에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기업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 제조기업 10대 대표기업



CEO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 규모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제도’도 추진한다.

(2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 한동훈 “서울 편입-경기분도 양립 가능… 적극 추진 약속”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총선 후 서울 편입 주민투표하고 법안 통과시 봄 온다”

▲ 정부, 설연휴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전담 수사조직 신설
▲ 국방부, ‘병 인건비 인상’ 등 상반기 국방예산 집행점검



▲ ‘돈봉투 의혹’ 이성만 “검찰 기소는 명백한 정치 기소”
/사진 뉴시스
▲ ‘반쪽짜리’ 사화대상공원 특위, 국회-민주당 갈등 여전

우후죽순 소수정당에… 민주 ‘통합비례정당’ 통일 이룰까

이재명, 당선권 절반은 민주당서 절반은 연합플랫폼 후보로 구상

민주당 ‘尹 정부 견제’ 텐트 세우고 동의하는 세력에 참여 도모하는 중

시민회의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지역구연합 만들어 통합적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5·16·17차 인제영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구에 서까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단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 목표 의석수가 151석이라고 밝혔다. 의석수 과반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이 목표라는 뜻이다. 151석을 차지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선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의석수 과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고심 끝에 이 대표가 들고 나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소수정당

을 끌어 안는 통합형비례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국민의힘의 인재풀로만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이 대표는 당선권 절반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소수정당 연합플랫폼에서 나온 후보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라는 텐트 기둥을 세우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 세력 안에는 정의당과 녹색당을 합친 녹색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나 용혜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연합 같은 연합 정당을 포함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약 24만표, 0.73%포인트 뒤져 고배를 마신 기역도 진보·소수



박석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추진의 원칙과 방향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당을 끌어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37%였기 때문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단일화만 됐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22대 총선에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이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했던 지난 21대 총선 직전 거대야당(현 국민의힘)의 격차와 지금 22대 총선을 앞둔 두 정당의 격차는 좁혀졌다. 민주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더해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여러 세력들과 통합비례정당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후보 단

일화 같은 이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해 ▲정책연합, 지역구연합, 비례대표 추천연합 통합 추진 ▲민주·개혁·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선거연합 공식화 절차 추진 ▲특정 정당 비례후보 추천 50% 제한 및 정당 추천 비례후보에 대한 정당·시민사회의 공정한 검증 절차 마련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개혁 정당의 선거연합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지역구 연합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통합비

례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 연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지만, 연합하려면 정책과 선거로 연합해야 한다”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역구 연합도 만들어서 병행적이고 통합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소수정당 비례 순번 번갈아 배치 ▲소수정당 추천은 지지율 등 국민참여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통합의 범위가 조국·송영길 신당까지 넓혀질 경우 당은 또다른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파열음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 참여 범위에 대해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아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당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국민의 최소한 선택 기준에 부합하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하고 통합비례정당 창당의 전반 업무를 맡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경상수지 74억 달러 흑자… 연간 355억 달러

관광객 줄어 서비스 수지 적자 기록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상품수지 흑자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7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에서 여행오는 관광객이 줄며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증가하며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1년간 누적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6억달러 늘었다. 당초 한국은행이 목표한 300억달러를 초과한 금액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며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 수출 80억달러 흑자…반도체 회복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23억1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51억달러 확대됐다.

경상수지는 국가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80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12월 수출액은 590억 달러로 전년 대



비 5.8% 늘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 수출이 19.1% 늘었고 승용차 수출도 19.2% 증가했다.

12월 수입액은 509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3% 줄었다. 에너지가 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가스 수입액은 30.6% 급감했고 석탄 수입액도 30.4%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25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로 여행가는 출국자는 증가한 반면 일본에서 여행오는 입국자가 줄며 여행수지는 13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특허권 사용료 수입도 줄면서 지재권 수지도 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자회사 배당수입이 늘며 24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경상수지는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전년 대비 96억9000만달러 확대됐다.

◆ 수출국, ‘중국’ 지고 ‘베트남·미국’ 뜨고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국이 전 망한 올해 경상수지는 490억달러다. 반도체 등 IT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상품수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 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도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 수출을 살펴 보면 12월 기준 수출금액은 동남아가 149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112억 9000만달러), 중국(108억6000만달러) 순 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까지 수출국 가 2위를 기록하다 3위로 밀려났다.

신 국장은 “추세적으로 보면 중국 수출 비중은 줄고 미국은 커지고 있다”며 “현시 자회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공급망재편으로 미국에 2차전 지를 직접 투자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비중은 낮아지고 베트남과 미국의 비중 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작권·예술의 정의 등 모든게 논쟁적

>> 1면 ‘생성시의 예술시장’서 계속

오는 3월 23일까지 스페이스55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엄선된 소재를 학습한 AI가 내놓은 기괴하고 초현실적이며 때로 소름 끼치는 전시 작품들로 채워졌다. 그로테스크한 작품이 주를 이룬 것은 AI가 해석한 사회의 모습이다. 전시 관계자는 “기괴한 결과물들은 인공지능이 현실의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생성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활발히 AI 작품이 대중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AI 예술은 다양한 문제가 대립 중이다. 특히 DALL-E, MidJourney 등 개인이 별도로 학습 데이터 조건을 한정할 수 없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자체가 가진 저작권은 물론 예술의 근본적인 정의를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논쟁적이다.

기업 투자이익 공유 ‘상생벨트’ 제도 마련

>> 1면 ‘올해 10대 제조업계’서 계속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

유명 미술 평론가 제리 잘츠는 AI가 생성하는 예술을 “질 낮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치부하며, AI가 “문명의 종말”과 같은 진정으로 독창적인 개념을 생성해야만 예술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킵판’이라는 활동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을 활발하게 선보이는 윤석관 작가는 AI 작품을 해석할 때 특별한 기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작품 생성을 위해 필요한 명령어의 차이를 지적한다. 윤 작가는 “빠른 기술발전으로 놀라운 창의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보이지만 작품 속에 자신의 스토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간 본인의 경험과 열정이 얼마나 프롬프트(명령어)와 결과물에 녹아들어 있는지 그 점에서 AI 아트와 단순한 인간과 AI의 협업 결과물인지 나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나유리 기자

시설 투자와 연계한 소부장 지원과 생산시설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D램개발 성과 등 실적반등 기대감… 컨트롤타워 재건 절실

>> 1면 '족쇄풀린 JY'서 계속

SAMSUNG

美 블랙록, 삼성생명 대주주 올라
경영권 분쟁우려 지배구조 개편 시급
실탄 100조 '의미있는 M&A' 과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D램 흑자와 함께 HBM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다시 강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모바일 갤럭시S24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파운드리 사업도 역대 최다 수주에 성공, 선제적인 '게이트 올 아라운드(GA A)' 적용을 통해 선단 공정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조직들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분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설 연휴를 맞아 해외 현장 경영을 위해 중동으로 떠났다. /뉴시스

다. 3D D램과 4F 스캐어 등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큰 성과가 있었고, AI와 로봇 등 미래 사업들도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사업기획단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미래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 지배 구조 개편 시작할까

삼성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지배 구조 개편까지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미래전

략실을 해체한 후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삼성전자에 '사업지원TF'를 운영하긴 했지만, 사법 리스크와 조직 규모 등 한계로 한 때 '마비' 수준이었다는 후문이다.

컨트롤타워를 재건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위기 속 계열사간 시너지가 절실한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협력을 통해 마스크를 대거 확보하는 등 효과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과 함께 미전실 소속이었던 임원들이 함께 무죄를 받으면서 위법성도 해소했다. 삼성 준감위도 꾸준히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배 구조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을 지주사격으로 하지만, 지분이 5.01%에 불과하다. 대신 삼성생명이 8.64%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을 지키고는 있지만,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시가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회장 지배력은 크게 떨어진

다. 미국 펀드인 블랙록이 2019년 1월 28일 기준 5.03% 지분으로 대주주에 올라있는 상황,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도 오랫동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컨트롤타워까지 재건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미있는 M&A'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약 75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금융상품(약 18조원) 등을 합치면 100조원 가까운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이 회장이 등기 이사에 오르고 컨트롤타워까지 재건되면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신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HMM 매각 '불발'… 동원그룹, 업황불황에 '인수 신중론'

당분간 산은 등 채권단 관리체제

HMM 경영권 매각이 최종 불발됐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HMM은 당분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의 HMM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7

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협상했지만, 일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 '경영 주도권' 싸움에 HMM 인수 무기한 연장

HMM 매각 작업이 백지화된 이유는 경영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영향이 컸다.

협상 초 산은·해진공은 공공 지분이 5%포인트(p)미만으로 떨어져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운산업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봤을때

HMM 경영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산은·해진공은 매각하는 지분의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체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떨어진다. 양측의 지분격차는 6.1%p 발생한다. 이를 두고 하림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하림의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가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요건을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이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해진공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림 관계자는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대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유력후보 '동원'… "내년 업황 어려워 인수 신중해야"

이에 따라 누구 손에 HMM이 인수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유력한 기업은 '동원그룹'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HMM 인수전에서 동원은 최종입찰에 참여했지만,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동원은 인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해운업황이 좋지 않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여척이 넘는 선박을 발주했다. 이 선박들이 운항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지고 운임비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나유리 기자 yul115@

JUNG KWAN JANG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설맞이
사은 행사

2024.01.19 ~ 02.12

- 30만원 이상 구매시, 굿즈 증정
※ 보드게임 + 복권 스크래치
- 선물용 제품 5~20% 할인

정관장물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가다림 필요 없는 매장 픽업 /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물 배송 / 소중한 분께선 특별 포장

제조원 및 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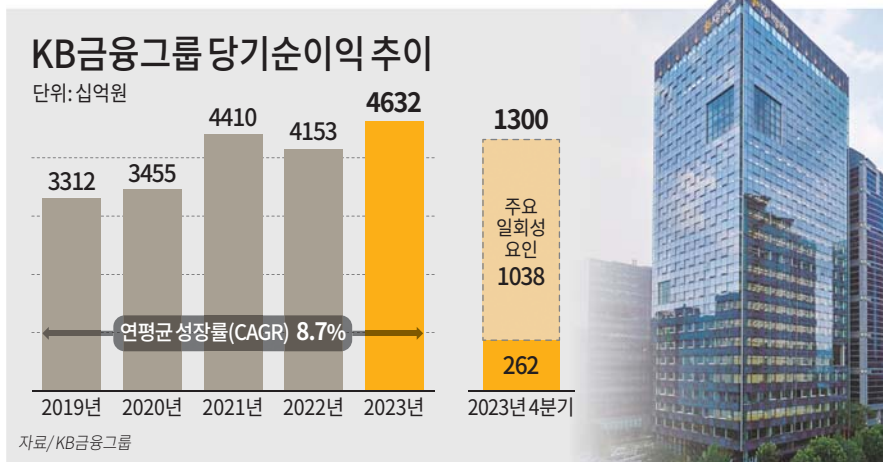
KB금융, 배당금 늘리고 자사주 매입... 기업가치 제고 나서

지나해 순이익 4.6조 '역대 최대' 실적
실적 개선, 안정적 비용관리 성장세
이자이익 5%↑·수수료이익 4%↑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 이와 함께 주당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도 나섰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2023년 당기 순이익은 4조6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비이자이익 중심의 견조한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비용 관리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KB금융 관계자는 "부문별로 고르고 강력한 수익창출을 이어간 결과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인 17.8%의 연간 성장률을 실현하며 약 16조원을 기록했다"며 "전사적 차원의 비용효율성 개선 노력의 결실로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도 역대 최저 수준인 약



41.0%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 당기순이익은 261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룹 희망 퇴직과 은행 민생금융지원 관련 참여은행 중 최대 금액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보수적인 손실율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등 일회성비용이 주로 반영됐다. 이를 제외한 경상 순이익은 약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불확실한 경영상

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과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지나해 순이자이익은 12조14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은행 원화 대출금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 말 대비 4.0% 성장하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했고,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 자산 리프라이싱(Repricing) 효과가 반영되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다. 연간 NIM은 그룹과 은행이 각각

2.08%, 1.83%로 각각 12bp(1bp=0.01p), 10bp 상승했다. 이와 함께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자이익 기여도도 꾸준히 확대됐다.

순수수료이익은 3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저성장·고물가로 소비심리 위축에 카드이용금액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식약정 금액 증가로 증권수탁수수료가 늘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의 결실로 역대 최초로 4분기에 9000억원 이상 그리고 연간 약 3조7000억원의 수준의 순수수료이익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0.67%로 상승했다. 지나해 4분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1조378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296억원 증가했다.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 보수적인 미래경

기전망을 반영해 약 510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고, 부동산 PF와 해외상업용 부동산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해 약 754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사회는 "주당배당금은 기 지급된 배당금 총 1530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2950원 대비 약 4% 증가한 3060원으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약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에 발표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나오는대로 적극 대응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최선"... 규제이행 감시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코인리딩방·유사수신 등 불법 만연"
4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가상자산법상 규제를 철저히 준비토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용자보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사업자 CEO 간담회다.

이 원장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

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는 우선 이달 중으로 사업자별 영위업무나 법상의무 등에 맞춰 관련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3월 중으로는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까지의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보고·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이 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

입은 그에 상응해 규제비용 부담과 법상의무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한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손님 여러분, **KB국민은행** 비행기가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객터미널 어디서든 은행 업무와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KB국민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ATM이 인천국제공항 하늘에?

인천국제공항 입점 가상옥외광고 공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초현실 광고를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행 갈 때 세상 빠른 환전 방법!

KB스타뱅킹 환전 신청 시 **인천국제공항 환전소 전용 QR수령증** 제공!
환전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KB스타뱅킹 환전 신청은 24시간(토,일,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65호(2024.02.01.), 광고물 유효기간 2024.02.01.~2024.12.31.까지

KB 국민은행

與野, 적대 공존으로 비호감만 쌓았다… 지지율 답보 상태

한동훈, 대통령과 갈등 공개 노출
이재명, 사법리스크·당 내 갈등

부동층 20%… 중도층 외연확장 안 돼
연휴 이후 공천 문제로 파열음 예상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쌓아온 '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가 각각 이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며 당의 전권을 잡았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제기된 성남FC 후원금·성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등 당 내 통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나 외부 인재 영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더 조명되면서 쉽사리 한 정당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 논의도 뜨겁지만, 이합집산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설 연휴 전에도 서로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 중텐트만 쳤을 뿐, 모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하는 빅테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두 정당의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며 횡보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 응답률 12.5%)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었다. 녹색정의당은 2%로 나타났고 기타 정당도 7%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16%, 모름 또는 무응답은 2%로 부동층은 20%의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도를 한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설립 업체 관계자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 야당은 사법리스크가 걸쳐 있어서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이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을 토대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양당의 공천 작업에서, 국민의힘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 측근이 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공천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열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 초반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양당이 원칙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기보다 사사롭게 연결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尹 갈등?… 서로 의견 설명·소통할 수 있는 관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김 여사 몰카 공작에 얽려 부분 있어
김경율 사천 논란, 외압 없음 강조
차기 대선 질문에 “총선 이후 생각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권 도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라면서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굉장히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개인적 관계는 길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선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림을 찍기 위해 산 것”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몰카 공작인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친북적인 사람이 공격적인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김경율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돼서 집권여당을 사당화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을 찾아 모셔오고 싶다. 정치의 신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사전사당화 논란도 있었다. 그런 문제는 저는 나을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감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천을 물대로 할 것이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에 대해 “본인의 뜻을 제가 존중하는 것이고 김 비대위원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혀, 외압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권 도전과 관련해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10 이후 제 인생이 정말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尹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우선 지원할 것”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찾아 “올해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북구의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7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환담하고 있다.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16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약 7.6평 정도의 크기에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인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김해 출마 요청

서병수 의원, 부산 출마 요청 수락

국민의힘이 서병수·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해진 의원에게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하면서, 영남권 중진을 향한 ‘릴레이 차출’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 의원은 7일 당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4·10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현 지역구를 떠나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에 출마해줄 것으로 부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해진 의원에게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해갑과 김해을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홍철·김정호 의원의 지역

구로,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각각 3선,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공관위가 서병수(5선·부산부산진갑)·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부산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을 아우르는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탈환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 상대적으로 ‘양지’인 지역구에 여권 정치 신인이 나서게 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낙동강 벨트’에 차출하게 되면 PK(부산·경남) 선거 판세 변화와 ‘교통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당의 요청에 화답한 것은 서병수 의원 뿐이다.

/서예진 기자



BIOM CERA *barrier*
CREAM

힘센 장벽 짝 찬 보습크림

earfit

@earfit_official | www.earfit.co.kr

박해진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명절 대목에도 여신잔액 챙긴다

작년 11월 여신 연초대비 9.3조 ↓
대출 감소에 자금조달 필요성 뚝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채권금리 ↓
입출금 금리 내린 은행권 영향도

저축은행이 파킹통장 금리를 낮추는 추세다. 설 명절 상여금, 용돈 등이 움직이는 대목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주기별로 금리를 조정하는 파킹통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파킹통장을 취급하는 주요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파킹통장이란 은행권 대비 고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이다. 주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이 취급하면서 연 3% 안팎의 금리를 적용한다. 유동성과 고금리 이자를 모두 누릴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짠테크족'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파킹통장 금리를 낮춘 곳은 SB저축은행이다.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0.2%포인트(p) 내린 연 3.3%로 조정했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은 3000만원까지 연 4.0%의 금리를 적용했던 'Fi커넥트 통장'의 금리를 연 3.60%로 낮췄다.

OK저축은행은 100만~500만원 예치금에 적용했던 'OK웃백만통장2'의 금리를 연 4.0%에서 0.5%p 인하했다. 아울러 애류온저축은행은 '플러스자유예금' 금리를 기존 대비 0.2%p 낮추면서 연 3.9%로 조정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특판을 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과 연초, 명절 등을 대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 수단이 예적금으로 한정된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 대비 수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저축은행이 파킹통장 금리를 낮춘 배경에는 여신잔액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대출 수요가 줄어 들면서 고비용을 수반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106조 2555억원이다. 연초 대비 9조 3448억원 줄었다.

은행권이 입출금통장의 금리를 낮춘 것 또한 영향을 준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채권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또한 예적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통상 저축은행은 은행권과 차별화를 위해 1%p 높은 수준

의 금리를 적용해 간격을 유지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쪼그라든 만큼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수선은 의미가 없다"면서 "은행권과 격차만 벌리면서 파킹통장, 예적금 금리를 조정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파킹통장 대신 예금상품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올해 저축은행 예금금리 또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 4%가 넘는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금리 막차'를 타야 하는 셈이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복수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한 가지 예금상품에 전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닌 1000만원짜리 예금상품을 5개 가입하는 방식이다.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만큼 '에테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을 분할해 보관하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방식이다"라며 "한 번 예금통장을 개설하면 20일 뒤에 재가입이 가능한 만큼 용도별로 자금을 나누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지난 6일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해외점포장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글로벌 사업, 수익 창출 위해 노력을”

이석용 NH농협은행장 화상회의
해외 점포장들에 목표 초과달성 주문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해외에서 조기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 목표 초과달성을 주문했다.

농협은행은 이 은행장이 지난 6일 해외 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뒀던과 싱가

포르 등 신규 네트워크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을 세워 길이 생긴다)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은 현재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11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부문 당기순이익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다른차량 운전시 특약가입 확인해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6만원'

손보험 '설 연휴 보험 활용법'

손해보험협회가 설 연휴 보험 활용법을 안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한 보험 활용법을 제공한다.

◆ 쓸쓸한 보험상품 4가지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상이 개시된다.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윈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봐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설 연휴 기간 중 국내 및 해외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도 있다.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 사고에 대비해 지역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 유용한 보험정보 3가지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 시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할 경우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으로 영상·그림·도표를 통해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손해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하면 손해보험상담센터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 유의해야 할 3가지

자동차 음주·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객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기 연루 및 가담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사고사실·피해정도를 속이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형기자 gh471@

이달 분양하는 서울 정비사업 단지 주목

반도건설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DL이앤씨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시장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 기조가 '맑음'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 단지는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도심에 자리해 정주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원도심에 위치해 입주 후 교통이나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 조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완비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내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달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반도건설은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을



'경희궁 유보라' 투시도.

통해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59~143㎡ 199가구와 오피스텔 21~55㎡ 116실 중 아파트 59~84㎡ 108가구, 오피스텔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 4대문 안 최중심 입

지로,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CBD·YBD·GBD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고, 도보거리에 금화초가 자리하며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이 주변에 위치한다.

강동구에서는 DL이앤씨가 성내5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그란츠 리버파크' 36~180㎡ 407가구 중 32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5·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이 가까워 잠실, 광화문, 여의도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다. 풍납근린공원과 올림픽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춰져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병원-환자 싸고 가짜 입원...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의사나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로 허위의 진료 영수증 등

을 발급해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공동조사 사건으로는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우선 선정했다.

먼저 병원이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병원이 환자 400여명과 공모해 실제

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이 병원 4곳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가로채기도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작지만 강하다’… 배터리업계, 성장성 높은 소형시장 공략

삼성SDI, e-모빌리티 시장 주력
하반기 46파이 배터리 셀 양산

LG엔솔, 소형 배터리 다각화
모바일 최적화 설계기술 보유

배터리 업계가 소형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하고 있다. 모바일뿐 아니라 e-모빌리티, 웨어러블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형 배터리 탑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사별로 기술력을 앞세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소형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올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 성장한 438억달러 규모로 예측하기도 했다.

소형 배터리는 소형 가전에 주로 쓰이는 제품이다. 2000년대 휴대전화와 노트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규모를 키워왔다. 원통형과 각형, 파우치형 등으로 구분된다.

소형 배터리는 최근 원통형을 중심으



LG에너지솔루션의 소형 배터리 제품

/LG에너지솔루션

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동안 파우치형 배터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수량 기준으로는 축소되기도 했지만, 원통형이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다시 채용을 늘리

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용 이동장치, e-모빌리티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경기 침체로 위축된 대

신,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등에서 소형 배터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관계자들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과 전동 공구 등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소형 전지가 저가형인 만큼 실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배터리 업계는 성장률이 높아 앞으로도 중요한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각사별 전략을 마련하고 소형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삼성SDI는 소형 배터리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등 모바일에 오랫동안 공급해 오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파우치형과 원통형, 각형 등 모든 소형 전지를 양산할 수 있다.

삼성SDI는 모바일에 더해 e-모빌리티 시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고, 전동 공구와 전기차용 등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46파이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하며 실적 개선도 이끌어낸다는

는 복안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은 회사로, 소형 파우치 등 다양한 소형 배터리를 새로 개발하며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배터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개 이상 바이셀을 분리막 위에 쌓고 접는 구조로,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파우치형과 각형만 만들던 SK온도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면서 소형 전지 시장 진출 여력을 확보했다. 최근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양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SK온이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용 4680형으로, BMW와 볼보 등에 적용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고출력과 고용량을 바탕으로 각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소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경제적 운영체제로 파격 요금제 내놓을 것”

신규이통사 스테이지엑스 간담회
내년 상반기 전국망 서비스 목표

신규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올 2분기 내 법인 설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5G 주파수 28㎐ 기지국 구축에는 6128억원을 투자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대표는 “스테이지엑스는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모든 운영을 AI가 담당하는 경제적인 운영체제 만들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4301억원을 입찰하며 최종 승자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정식 사업자로

서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이통 3사보다 재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지국 의무구축 등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심지어 정부가 설정한 경매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742억원 보다 5배 가량 비싼 금액에 낙찰받으며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서대표는 “이통 3사의 5.5% 수준인 6128억원의 비용으로 의무 설치수량인 통신설비 6000대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절감한 비용을 고객 혜택과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 국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분기 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구축을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대표는 “올해 2분기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구축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 28㎐ 기지국 확대뿐 아니라 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로 확보해 자체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망 품질 관리부터 가입자 응대 등 서비스 운영에 있어 AI를 활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수익성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또 “설비와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며 “통신사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코어 망 전체를 클라우드로 가상화해 경제성을 확보, 효율적 비용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ngja_tea@



(왼쪽부터)이규복 현대글로벌비스 대표이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현대글로벌비스 평택항 자동차 전용 터미널”에서 열린 “1만800대적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초대형 車운반선 4척 확보

해양진흥공과 PCTC 확보 맞손

현대글로벌비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운반선(PCTC) 4척을 확보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난(難)을 예방하고, 사업 영향력을 강화해 글로벌 PCTC 공급 부족 사태 해소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자동차 전용 터미널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1만800대적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글로벌비스는 세계 최대 규모 PCTC 4척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양진흥공사가 선주사업을 통해 신조발주하고, 2027년 현대글로벌비스에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현대글로벌비스가 확보 계획을 밝힌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엔진 PCTC 12척 중 일부다.

현대글로벌비스의 PCTC 추가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흡입력·AI 강화 ‘비스포크 제트 AI’ 출시

삼성전자, 2024년형 신제품 선풍기
자사 특허기술 바탕으로 기능 업그레이드

삼성전자 무선 스틱 청소기가 더 똑똑하고 강력해졌다.

삼성전자는 8일 2024년형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흡입력과 인공지능(AI)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개발했다.

흡입력은 310W다. 체인코어 형태 초경량 모터 구조와 내부 핵심 부품 구조

효율화로 공기압 손실을 줄여 전작보다 20% 가까이 더 강력해졌다.

AI 기능도 더했다. 바닥 재질 등 청소 환경을 알아서 인식해 최적의 모드로 설정해준다. AI모드 2.0은 ▲마루, 카펫, 매트 등 바닥 종류 ▲청소 중 브러시가 들린 상황은 물론 ▲마루 구석을 청소하는 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흡입력을 맞춰준다. 마루 모퉁이에서는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주는 등으로 강력 모드 대비 배터리 사용량을 25% 절감해준다.



삼성전자 2024년형 비스포크 제트 AI

미세먼지도 새지 않도록 막는다. 해파 필터레이션을 새로 적용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느린 학습자 위한 가전설명서 발간

쉬운 글 도서 세탁기·전자레인지편

LG전자가 냉장고와 에어컨에 이어 세탁기와 전자레인지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쉬운 글 도서’ 세탁기와 전자레인지편을 새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쉬운글 도서는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 이동을 위한 가전 사용 설명서다.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아동이 가전을

쉽게 사용하고 일상의 자립을 돕는다는 목표, ‘가전 학교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와 지식을 담은 스토리북, 쉬운 글과 그림 중심으로 쉽게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별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세탁기편에는 세탁기와 옷가지 종이 모형으로 구성해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종이 놀이 키트’도 포함했다.

/김재웅 기자

LG화학, 양극재 50만톤 공급한다 美 GM에 2035년까지 ‘25조 규모’

전기차 약 500만대 이상 생산 분량
테네시 공장 2026년부터 공급 시작
“전략적 협력, 전기차 시장 주도”

LG화학이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M)와 25조원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한 LG화학은 GM과 함께 북미 시장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GM과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2035년까지 최소 24조 7500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GM에 공급한다.

양사가 거래할 양극재 물량은 50만톤 이상이 될 전망이다. 양극재 50만톤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50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22년 7월 양극재 장기 공급을 위해 포괄적으로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양사는 이번 공급 계약으로 협력을 강화하며 합의 물량 일부를 구체화했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본격 가동하는 2026년부터 GM에 북미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한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는 주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울티엄셀



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LG화학

즈(Ultium Cells)에 쓰일 전방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GM과의 직접 계약인 만큼, GM의 다른 전기차 프로젝트에도 LG화학의 양극재가 사용될 수 있다. LG화학은 현지 공급망을 통해 GM 등 고객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한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테네시 공장은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LG화학은 소성 공정 설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해 라인당

연산 생산 능력을 1만톤까지 높일 예정이다.

제프 모리슨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담당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GM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LG화학과 함께 북미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인 GM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며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을 통해 LG화학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그레이트 챌린저’ 첫 걸음… 성과급 개편

한화 RSU 전계열사로 확대
기업성장·주주가치 제고 보상

한화가 2024년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를 향한 첫 걸음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한다.

한화는 ‘책임경영·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RSU(양도제한조건 부주식)를 전계열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가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

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급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은 1990년대 미국 IT 기업들이 도입한 ‘스톡옵션’이 그 시작이다. RSU 제도는 ‘스톡옵션’ 제도가 전문경영인이나 핵심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도입한 후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애경케미칼,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공략

철근 대체 합성수지 경쟁력 개선

애경케미칼이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면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일 애경케미칼에 따르면 국내 최초 페PET를 재활용한 친환경 가소제를 개발해 양산 중이다.

애경케미칼의 제품력은 최근 파트너 업체인 녹수가 애경케미칼의 가소제를 사용해 만든 바닥재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닥재 전시회 ‘TISE 2024’에서 최고상인 ‘Best of Surface’를 수상하며 각광받기도 했다.

페PET를 재활용해 가소제를 만드는 방식은 국내 최초 사례로, 기술의 차별성과 제품의 우수함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국제 친환경제품 인증인 ISCC PLUS와 GRS(Global Recycled Standard)도 획득했다.

회사는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GFRP Rebar’의 필수 원료인 합성수지의 성능과 품질 개선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10월 GFRP Rebar 생산전문기업 KCMT와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표준 규격 구축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GFRP Rebar는 철근 대비 강도는 2배 이상 크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라 시공 및 운송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한 내부식성으로 녹이 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건축용 친환경 자재로 각광받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 제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AI 신사업 드라이브… 투자 확대

투자증가에 지난해 영업이익 7.7% ↓
설비투자에 전년대비 3.9% 늘어나
스타트업 ‘포티투마루’ 100억 투자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전력료 인상과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여파로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다. 반면 매출액은 기업간거래(B2B) 신사업 매출 증가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회사는 가입회선이 크게 성장하며 통신 3사 점유율에 변화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해 신사업 수익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연간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14조 3726억원, 영업이익은 9980억원이라고 7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4% 늘었고 영업이익은 7.7% 줄었다. 연간 CAPEX(설비투자)는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지국 구축과 사이버 보안 투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9% 늘어난 2조 5140억원을 집행했다. 당기순손실은 6302억원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5195원으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가입회선 크게 늘어… 점유율 변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자사의 모바일 사업이 크게 성장하며 가입 회선이



LG유플러스 본사.

/LGU+

늘었고, 이를 통해 통신 3사 점유율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디지털혁신그룹장은 이날 진행된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모바일 사업은 견조한 성장 외에도 의미 있는 정성적, 정량적 성과를 거뒀다”며 “MNO(이동통신) 가입 회선이 크게 성장하면서 깨지지 않던 통신 3사 점유율에 처음으로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2023년 4분기 기준 매출만 보면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3조 820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매출도 3조 98억원으로 2.2% 상승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에 따른 비용 반영이 시작되는 등의 원인으로

로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1955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모바일 매출은 20% 이상의 무선 회선 수 증가, 5G 보급률 증대, 1%대 초반 해지율 기조 지속 등 2022년에 이어 질적 성과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2.0% 증가한 6조 3084억원을 달성했다. 접속매출을 제외한 무선 서비스매출은 2.6% 성장한 5조 9814억원이다.

MNO와 MVNO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 회선 수는 2509만 7000개로 전년 대비 26.1% 늘어나며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5G 가입 회선은 2022년에 비해 약 16.2% 늘어난 704만개를 달성했다. 핸드셋 기준 전체 가입자 중 5G 고객 비중은 64.3%로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며 모바일 사업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

솔루션 사업은 매출은 AICC, 스마트모빌리티 등 B2B 신사업 성과가 실적을 견인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한 5799억원으로 나타났다. IDC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3264억원이다. IDC 사업은 전력 절감 노하우 및 우수한 안정성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2023년 매분기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기후변화 ‘리더십 A’ 3년 연속 선정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선정

SK텔레콤은 글로벌 비영리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선정하는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등급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CDP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투자자를 대신해 전세계 주요 기업에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 전세계 금융

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한다.

CDP는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 3개 영역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전세계 2만 3200여개 참여기업 중 347개 기업(1.5%)이 ‘리더십 A’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총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SK텔레콤은 통신분야에서 유일하게 국내 CDP 참여 기업 중 3년 연속으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구남영 기자



유한양행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홈 HAPPYHOME® 파워캡슐 올인원

세척·탈취·유연·향기
빨래를 알아서 한 번에!



유한양행
버들장터
바로가기

설 명절 선물세트 구매는
유한양행 자사몰 버들장터에서



기업들,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에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의지 보여

SK이노, 작년 실적 51.4% 감소 등
자사주 소각 발표에도 주가 4.96% ↓
HD현대건설기계, 최초 소각 결정
삼성물산, 7677억 어치… 주가 7.7% ↑
기아, 5000억 신규매입 후 절반 소각



/유투이미지

기업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 등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각자 별로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의 발 빠른 변화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부가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전날 SK이노베이션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현물 배당을 대신해 해당 가능 이익 범위 내의 자사주 491만9974주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자사주 소각과는 다소 상충되는 1조1400억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주가는 현재까지 33.73%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실적도 영업이익 1조90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1.4% 감소하는 성적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6일에도 4.96% 가량 떨어졌다. 한 개인 투자자는 “애초에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었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게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가 선두로 시작한 주주환원 풍토가 훈풍을 타기 시작하면서 산업계도 발 빠르게 주목하는 모습이다. HD현대건설기계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래 최초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전날 총 303억원 규모의 자사주 59만2000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기존에 취득해 뒀던 자사주 85만3697주도 오는 4월 30일에 소각할 예정

이다. 총 144만5697주를 소각하는 것이다. 다만 HD현대건설기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이상 오른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기아, DL이앤씨 등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삼성물산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7677억원어치(4.2%)를 소각한다고 발표했고, 다음날 주가는 7.75%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현재까지 3.42% 오르며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기아 역시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 기아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규 매입한 뒤 상반기 중 50% 소각하고, 이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시 나머지 50%도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기아는 상장사 중 가장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주는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아는 이달에만 11.46%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속세 완화 등의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내 가장 높은 수준인 60% (경영권 지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업비트 FDS, 고객 자산 1200억 보전 성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두나무, 거래패턴 학습 AI 도입

업비트의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이 1200억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FDS가 누적 12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거래를 잡아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지능화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DS를 구축·운영 중이다.

통상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FDS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이체 받은 경우, 입금 후 30분간 해당 금액만큼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인출·이체할 수 없다’와 같은 형태의 ‘규칙(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업비트 역시 2020년 11월 원화 입금 시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를 도입했다. 2021년 4월에는 첫 가

상자산 입금 시 72시간 이후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원화 출금 지연 제도’를 적용했다.

두나무는 여기서 나아가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룰 학습을 넘어 실시간 이상 거래까지 학습하는 FDS를 자체 개발했다. AI 기반 업비트 FDS는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특정 조건이 아닌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외부 공격자가 업비트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경우 획득한 인증 정보로 이용자 행세를 하게 된다”며 “또한 피싱범에게 설득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자는 외부 조종에 의해 스스로 자산을 내보내기 때문에 정상 거래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업비트 FDS에 특정 조건이 아닌 거래 패턴을 학습하는 AI를 도입한 배경이다.

실제 업비트 FDS는 최근 패턴 학습을 바탕으로, 군 복무 중인 업비트 고객 자산가의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해 자산 탈취를 막았다. 자산 출금까지 시도했으나 업비트 FDS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포착돼 실패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저평가주 중심 프리셋 신규 오픈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통해 선정

KB증권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최근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저평가주 중심의 ‘기업밸류업 저PBR&저평가주’ 프리셋을 신규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은 투자자 개인의 선호, 투자성향, 투자목적에 따라 개인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서비스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예고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가치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유사한 정책을 펼친 일본의 주가 상승 경험을 벤치마킹해, 정부도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그 핵심으로 하는 주가 부양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저PBR로 우리



/KB증권

나라 증시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배경으로 KB증권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현재 PBR이 낮아 저평가된 상장 보통주 중, 자사주 비율이 높아 향후 한국주식재평가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을 발 빠르게 선정해 ‘기업밸류업 저PBR & 저평가주’ 프리셋(투자전문가들이 사전 제시한 예시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여기에는 지주사, 금융,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포함했다. /신하은 기자

하나투어, 코로나19 부진 털고 ‘통 큰 배당’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의 흑자 전환
4년 만에 결산배당… 주당 5000원
을 실적 정상화 기대에 목표주가 ↑

하나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며 4년 만에 주당 5000원의 통 큰 배당을 결정했다. 올해는 완전한 실적 정상화가 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4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나투어의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16억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607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4년 만에 결산 배당도 재개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0원을 결정했다. 하나투어가 마지막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했던 2019년 400원과 비교하면 12.5배 오른 금액이다.

앞으로의 배당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말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30~40%를 배당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14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악화로 지난 3년간(2020~2022) 주주환원이 부재했음을 감안, 배당 규모를 확대한다”며 “2023년 결산 배당은 예외적으로 상기 배당정책을 초과하는 수준의 특별 배당금으로만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하나투어는 올해 완전한

실적 정상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 기대까지 더해지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승했다.

현대차증권은 하나투어가 올해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주가는 기존 4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3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며 “배당정책(연결당기순이익의 30~40%)에 따르면 경상적인 주당배당금은 1200~1600원으로 배당수익률 2.0~2.5%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나증권 역시 하나투어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7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예탁원 “지난해 자본시장 관련 대금 6.6경”

전년비 10.6%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자본시장관련대

금이 6경6247조원으로 전년(5경9960조원) 대비 10.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일평균 처리대금은 269조원으로, 2019년 일평균 처리대금 189조원에 비

해 최근 5년간 약 1.4배 증가한 규모다. 자본시장관련대금의 규모는 주식·채권 등의 매매결제대금 6경2181조원(93.9%), 등록증권원리금 2184조원(3.3%), 집합투자증권대금 1326조원(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 달러표시 한전 채권 판매

세전 은행환산수익률 연 5.721%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채권을 통한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채권은 한국전력이 과거 2020년 6월 15일에 달러로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은 AA-(Fitch), A A(S&P)이며 2025년 6월 15일 만기이다.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1.125%로 매년 2회 이자를 지급한다. 세전 은행환산수익률 연 5.721%(2월 6일 기준, 잔존만기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매월 국제신용등급



/신한투자증권

A등급 이상의 달러표시 채권을 선별해 모바일 특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객들의 글로벌 투자자산 니즈 확대를 반영해 다양한 해외채권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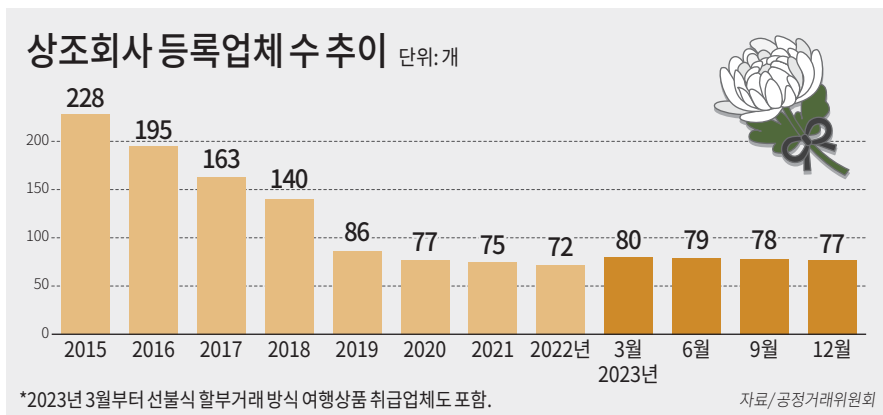
상조회사 추가금 피해 주의보… 가입유도 전화오면 의심해야

공정위, 회사 폐업엔 보상 어려워
‘내상조 찾아줘’서 적법한지 확인

자산·부채·자본금 등도 알수있어
피해보상 계약 체결 여부 살펴야

이진성(가명)씨는 최근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며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H상조회사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이씨는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최근 문을 닫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터였다. 상담원은 그에게 폐업한 상조회사에 댔던 액수를 뺀 나머지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자사의 상조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1~4년 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면 폐업한 회사에 댔던 돈과 추가로 낸 액수까지 포함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박성진(가명)씨 역시 자신이 가입한 T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S상조회사가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았으며 박씨에게 연락해 회원자격을 유지하기위해선 추가 납입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체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와 같이 상조회사가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은 후불제 상조회사로, 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 이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또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상조상품에 가입하기에 앞서 공

정위가 구축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이름으로 검색해 적법한 곳인지 확인하는 게 1순위다. 특히 상조회사에서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먼저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보아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사명을 검색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정상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지급여력 비율 등도 알 수 있다. 회계연도가 끝난 감사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

다. 선수금 규모와 어떤 금융기관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이 낸 납입금 조회도 가능하다.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고객이 내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거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한국상조보증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고객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상조가입 인원은 833만명, 누적 선수금 규모는 8조39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가입 인원이 100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인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

상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부도나 폐업 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보상증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상조회사를 통해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회사)는 4분기에 4대노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면서 77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오는 3월22일부터는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돼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들로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백, ESG경영 관심도 업계 1위 차지

지난해 12개 채널 정보량 분석결과
2위 롯데 이어 신세계·갤러리아 順

현대백화점이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데이터엔리서치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6개 주요 백화점에 대해 ESG경영 정보량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백화점은 정보량 순으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NC백화점 등이다. 조사 키워드는 ‘백화점 이름 + ESG’ 등이며, 키워드 사이에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도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초 데이터엔리서

치가 분석한 백화점 업계 관심도에서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ESG경영 정보량 조사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분석 기간 총 1984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기록하며 백화점 업계에서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현대백화점은 고려대학교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고려대와 축제 기간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분리배출 실천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클린존’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 대전에 시민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과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공공시설물을 마련하는 ‘스마트 웰터 기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사회안전’을 지난 2023년 ESG경영 전략의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2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손질해주는 ‘프레시 테이블’ 서비스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중단을 통해 연간 6.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조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년간 총 1129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나타내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롯데백화점은 지구의 날을 맞아 뷰티 ESG경영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롯데백화점은 ‘디포션’, ‘리솔츠’, ‘그랜데비’ 등 3개 비건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며 ESG경영을 실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오픈 10일’ 스타필드 수원, 84만명 방문

MZ타겟 콘텐츠 큰 호응

신세계는 지난 달 26일 그랜드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 방문객 수가 열흘 새 84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 수원’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수원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기존 가족 중심의 1세대 스타필드에서 나아가 국내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에 특화한 ‘2세대 스타필드’ 첫 매장이다.

압도적 규모의 ‘별마당 도서관’과 현대·성수에서만 볼 수 있던 MZ세대 타겟의 패션·식음료·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츠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개점 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4층에서 7층까지 높게 트인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매주 주말 문화 공연을 진행해 발코니마다 관람객들이 봄비면서 지역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 중이다.

지역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스타필드 수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뛰어나다. 세수 확보 및 지역민 3000명 채용 등은 물론, 스타필드 수원 방문객이 골목 곳곳으로 유입되면서 화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



스타필드 수원 외경.

/신세계프라퍼티

실제, 스타필드 수원 반경 150m 내에 있는 화서역 먹거리촌의 경우 점포 총 50여곳의 매출이 스타필드 개장 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 상승했다.

또한 먹거리촌 방문객들이 협소한 점포 주차장이나 골목에 주차하는 대신 스타필드 수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인근 주차난과 통행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 5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동철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한전에 中소요금 신설 등 건의

최저가 낙찰제 개선도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 현안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해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참여사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4년 기술거래사업과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7일 기보에 따르면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기보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및 최종 심의를 통해 40여개 기업을 선정해 이 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사업에 뽑힌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비용 등 상용화 제반 비용 ▲기보의 IP인수보증에 대한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을 통해 최대 1억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기업·대학 등에 ‘1200억 규모’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본격화

산업부, 신규사업 과제 수요 접수
신규예산 70%, 40대 프로젝트 투입
10%, 실패 감수 등 도전적 연구 투자

정부가 올해 1200억원 규모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신규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으나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 최고·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를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 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며 실패 위험이 커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

굴한다.

또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 예정인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내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에 지원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술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무협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추대

한국무역협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무협 회장단과 이사상사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민간 경제 협력과 산업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향후 한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협의 일본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일본 경제동우회 산하 ‘일한 교류 위원회’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해 한일 기업 간 교류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가 양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오는 3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를 도쿄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행사인 ‘2024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5월 도쿄에서 열린다. 6월 개최되는 ‘넥스트 라이즈 2024’에서는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 8만명, 공공기관 인턴 등 ‘일 경험’ 제공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계획 논의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 신규 개설

올해 청년 8만명 이상에게 공공기관 인턴 등 일경험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작년 2000명 규모로 신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리고,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만 2000명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채용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해 청년과 기업 만족도가 컸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만 8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과 대전, 대구 등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63개 시·군·구 농촌빈집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국비·지방비 등 5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따른다.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등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월말 기준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다.

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탄강 등 지방하천 20개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 홍수피해 대응 강화

환경부가 8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승격 대상인 20개 지방하천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10곳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운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 승격 예정인 10곳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삼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km에서 89곳 4069km(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해당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문제는 창의력이야!



Hervé Tullet

에르베 툴레展

색색깔깔 뮤지엄

2023.11.03 ~ 2024.03.0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주관
ARTCENTER IDA

창의예술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LÜK 루크박스

협력

my art

my art

씨씨씨씨

홍보 마케팅

(주)사아컴퍼니

울산시, 장애인 문화·정보교류 등 복지 확충에 1838억 투입

전년비 236억 증액... 14.7% ↑
컴퓨터·악기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을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 개소

울산시는 장애인의 문화·정보교류와 복지 인프라 확충, 사회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원(14.7%) 증액됐다.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시는 장애인의 문화 욕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컴퓨터, 악기 등 장애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한다. 또 4월 중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주간행사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을 개소해 학대로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1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3년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청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발달장애인 거점 센터'도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나선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시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확보(국비 30억원, 시비 22억원)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인력 증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급식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751명으로 확대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도 지원한다.

또 올해도 장애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간다. 인형극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장애인차별상담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스마트기술 접목해 대중교통 개선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

광역환승 특화도시 구축 등
지난해 8개 분야 정책 수립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고자 올해 상반기부터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고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는 다양한 교통 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신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미해 안전하면서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새로운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업 등의 불안 요소가 없어야 하고,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진주시, 스마트기술 접목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인가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지난해에 수립한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른 것으로 ▲진주형 MaaS(광역환승 특화도시) 구축 ▲DR 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 ▲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체계적인 스마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디자인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미지 개선 ▲행정조직 개편 등 크게 8개 분야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진로진학 연계사업 성과

조선대 등 7개 대학과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일반고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진행한 고교-대학 연계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6~7일 양일간 조선대 등 7개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협력 강화 워크숍을 갖고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을 주관한 조선대 외 6개 대학이 대학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지역인재 전형 현황을 소개했으며, 지역 사범대의 전라남도교육감추천 전형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전남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지원을 위해 진행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순천대 관계자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램 중에서는 ▲조선대의 ON:tact 미래전공설계(60강좌, 4,000명 참여) ▲광주교대 도서지역 고교방문 프로그램(17교, 349명 참여) ▲목포대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전공이야기(15교, 4,320명 참여) 등이 두드러졌다. 또한, 순천대의 오픈 캠퍼스-학과탐방(13회, 1,414명 참여), 전남대의 5개 권역 진로진학 상담센터와 함께한 학부 모아카데미(5회, 200명 참여)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고흥군, 미래전략 항공산업 육성 '총력'

드론·UAM 중심도시 입지 다져

고흥군은 2024년을 드론·UAM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미래 전략 항공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고흥군은 우주산업에 이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기반 우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그중 고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직경 22km), 고흥 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시험성능장(1.2km/700m 활주로), 고흥 드론센터, 드론상업화 실증 지원센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으로 드론·UAM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20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인 4만 평의 드론 제조연구 시설인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와 드론 체험 교육 전시 시설인 드론체험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고흥 드론센터 내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이고 역량있는 드론 관련 기업체 유치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고흥형 UAM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UAM 모니터링 기반구축 시설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UAM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지역 이모저모

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 부담금 지원

정읍시가 영농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이 있다.

안전보험은 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으로 매년 가입해야 한다.

/정읍(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연이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지역 R&D 전담조직)을 대상으로 평가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경북연구개발지원단(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R&D역량 분석, 산업 지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현안과제 발굴·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실행력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구미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

구미시는 낙동강 지역에 새로운 관광 코스인 '낙동강 비산나룻길'을 조성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8일 16시부터 개방한다.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전체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산나루터와 구미천 중점부까지 수상 보도교와 데크길 등 총 길이 1km의 탐방로를 조성한 사업이다.

비산나룻길은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낙동강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탐방객들에게 힐링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대구시, 올해 신규공무원 210명 채용

전년비 212명 감소... 50.2% ↓

대구시는 2024년도 신규공무원 채용 규모를 210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인원, 시험일정, 시험제도 변경사항 등 세부 시험계획을 7일 발표했다.

대구시의 올해 선발인원은 5급 1명(일반의무), 7급 8명(일반행정 3명, 수의 5명), 8·9급 191명(일반행정 9급 등 20개 직류), 연구직 10명 등 25개 직류 21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12명이 감소한(-50.2%) 것으로 민선 8기 들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혁신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정원동결 기조를 반영하고, 유사기능 통합화 및 쇠퇴분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우선으로 필요한 최소인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확정했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의무직 5급 1명 ▲행정직 7급 3명 ▲수의직 7급 5명 ▲행정직 9급 75명 ▲세무직 13명 등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손쉽고 빠르게 집밥 ‘뚝딱’… K-소스, 글로벌 입맛 잡는다

CJ제일제당 ‘백설 뚝딱소스’
출시 2개월 만에 100만개 판매

롯데웰푸드 ‘쉐푸드 요리킵’ 4종
외식·급식 사업장 등 수요 늘어

삼양식품 소스사업 강화 나서
불닭소스 라인업 확대 수출 추진

식품·외식 업계가 소스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외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음식에 간편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소스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K푸드가 인기를 끄는 것에 착안해 소스를 글로벌 전략제품으로 낙점,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소스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 3700억원에서 2022년 2조3000억원, 지난해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조리가 빠르고 복잡한 레시피 없이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맛을 낼 수 있어 소스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출시 2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달성한 심플쿠잉 테마의 CJ제일제당 간편식 제품 ‘백설 뚝딱소스’는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춰 카파오무쌈과 크림치킨마



삼양식품이 불닭소스를 1000억 브랜드로 키운다.

/삼양식품

크니 커리 등 이국적인 맛과 트러플 고기 짜장, 스팸 김치 뚝딱 등 익숙한 맛으로 구성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롯데웰푸드는 롯데호텔 총주방장 출신의 남대현 요리 명장과 함께 식자재만 있으면 어디서든 10분만에 수준 높은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쉐푸드 요리킵’ 4종을 선보였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외식·급식 사업장에서도 소스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CJ프레시웨이의 지난해 소스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관련 매출은 외식 사업장과 단체 급식 경로에서 각각 31%, 42%씩 늘었다. 연간 판매량은 2만6000t으로 하루 평균 71t씩 팔렸다. 메뉴형 완제

소스,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중식 소스의 판매 성과가 돋보였다.

CJ프레시웨이는 B2B 고객 맞춤형 상품을 지속확대하고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소스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출범한 통합 R&D 센터이자 B2B 식품 브랜드 ‘이츠웰’을 통해 제품을 개발·유통한다.

일부 기업들은 소스를 글로벌 전략 카테고리로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은 불닭소스를 중심으로 소스사업부문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양식품이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2022년 소스·조미소재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29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

세를 보였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액상소프만 따로 판매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2018년 불닭소스를 정식으로 출시한 이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소스사업부를 키우고 있다. 오리지널 불닭소스를 시작으로 까르보불닭소스, 불닭마요 등을 추가로 선보이고 외식업체와의 협업,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소스를 김치, 김, 간편식과 함께 4대 글로벌 전략 카테고리로 선정하고,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한국 전통 장류를 활용한 소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최근 대상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가 선보인 ‘매콤달콤 고추장’(Swicy Gochujang)과 ‘스모키 K-BBQ’(Smoky K-BBQ) 2종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들은 한국식 치킨 맛을 살린 치킨 디핑소스다.

식품업계의 소스 사업은 효율적인 카테고리 확장의 수단이자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들이 소스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소스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집밥 트렌드가 부상한 데다 해외에서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 소스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라셀라가 이케아 광명점에 와인픽스 10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나라셀라

‘와인픽스’ 10번째 매장 이케아 광명점에 오픈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이케아 광명점 P1층에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와인픽스’는 10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

도심 속 와인 아울렛 콘셉트의 ‘와인픽스’는 2021년 첫 번째 매장으로 성수점을 오픈한 후 양평, 동탄, 부산, 여의도, 광주봉선점에 이어 지난해에는 ‘와인 라이브러리’란 콘셉트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청담점과 분당점, 압구정현대점을 오픈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은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500여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주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나라셀라는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 오픈을 기념하여 8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먼저 사포 무통 로칠드, 사포 라피트 로칠드, 사포 오 브리옹, 사자카이아 등 프리미엄 와인과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 맥켈란 18년 웨디 오크, 산토리 히비키 하모니, 산토리 야마자키 12년 리미티드 등 희귀 위스키를 선착순 한정 수량 판매할 예정이다. 또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 세트 상품 추천과 함께, 짐빔 하이볼, 바이엔슈테판, 아시히수퍼 드라이 생맥주 등 맥주와 RTD 제품도 특가로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

오리온, 지난해 매출 2.9조 영업익 4923억 ‘동반 상승’

매출액 1.4%, 영업익 5.5% 늘어
주당 배당금 950원→1250원 확대

오리온은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9124억원, 영업이익 492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은 중국과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춘절’, ‘땃’ 시점 차이에 따른 역기지효과와 중국 위안화 약세 및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영업활동, 생산설비 확대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며 1.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료공급선 다변화, 글로벌 통합구매 등 제조원가 관리를 통한 효율 및 수익 증시 경영으로 5.5% 증가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은 16.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가치 증대 차원에서 주당 배당금도 기존 950원에서 1250원으로 31.6%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 법인은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매출액은 13.9%

성장한 1조 700억원, 영업이익은 20.4% 성장한 1688억원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다.

올해에는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진천 물류센터 착공에 나서며 공급 확대를 위한 토대를 다진다. 이와 함께 지난해 증설한 파이, 비스킷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스낵, 젤리 등 생산라인을 추가 구축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국내 판매 채널 다각화와 중국 등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마켓오네이처는 그레놀라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갈 방침이다.

해외 수출 측면에서도 미국 등 북미 시장 내 대형 유통채널의 입점과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역 확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국 법인은 춘절 시점 차이에 따른 영향과 위안화 약세 등 악재로 매출액은 7.5% 감소한 1조178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불필요한 할인행사를 지양하고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4.4% 증가한 2210억원을 달성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GRS, 잠실에 ‘쇼콜라 팔레트’ 오픈

쇼콜라 드링크류·풍두 등 판매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확대되는 디저트 시장을 공략한다.

롯데GRS는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디저트 카페 ‘쇼콜라 팔레트’를 오는 13일 잠실 송리단길에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쇼콜라 팔레트는 ‘Make a Magical Moment’란 슬로건으로 색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2030 세대의 소비트렌드를 접목해 다채롭고 다양한 제품을 구성했다.

쇼콜라 팔레트는 리테일 성격의 단순 제품 판매점과는 차별화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롯데중앙연구소와 함께 카카오 매스 분쇄기(금라인더)를 공동 개발해 매장에서 직접 추출한 초콜릿 디저트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매장에서 즉석 추출한 카카오 매스를 바탕으로 제조한 쇼콜라 드링크류 ▲빵과 함께 즐기는 스프레드, 스트룹 와플, 풍두 플레터, 초코 각테일 등 총 20종의 제품으로 카카오 고유의 깊은 향과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다채로운 색감의 플레이팅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BBQ,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매장 추가

중남시 시장 확장 속도전

BBQ가 지난해에 이어 코스타리카에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중남미 시장 확장의 속도를 높인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에 ‘BBQ 차이나타운점’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매장은 산호세 중심 다온타운 내 ‘차이나타운’ 초입에 위치했다. 산호세 차이나타운은 중국 현지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과 식료품점 등이 있어 관

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인근에 코스타리카 국립 박물관과 국립극장 등 관광 명소도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다.

차이나타운점은 182㎡(55평) 규모의 BBQ 빌리지 타입으로 황금올리브 치킨, 양념치킨 등 치킨 메뉴를 비롯해 제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SG닷컴 “새벽배송 구매하고 네슬레 샘플 받아요”

SSG닷컴이 오프라인 시식 경험을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온 ‘체험 소비’ 행사를 시도한다. 쓱닷컴은 온라인 시식회를 통해 다양한 신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해 그로서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SSG닷컴은 7일부터 새벽배송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네슬레’ 인기 상품 샘플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6만원 이상 구매 고객 선착순 8000명에게 네슬레 사은품 3종 중 1종을 무작위로 증정한다. 벨런타인데이를 기념해 ‘킷캣 미니녹차’, ‘킷캣 오리지널 4핑거’, ‘스타비스 파우더커피 샘플키트’를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K-제약·바이오 “중동·북아프리카 흐름에 발 맞출 것”

사우디아라비아, 2040년까지
국제 바이오허브 로드맵 제시

조아제약 ‘아랍헬스 2024’ 참가
동남아·중동 할랄시장 공략 나서
SK바사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진
GC지놈 ‘메드랩2024’ 참석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흥 제약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2040년까지 국제적인 바이오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생명공학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개시한 이 전략은 사우디가 오는 2030년까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바이오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2040년까지 국제적인 바이오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사우디는 해당 전략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300억 리알(346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2030년까지 1만1000명, 2040년까지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아랍헬스 2024’에서 조아제약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아제약 부스를 운영했다. /조아제약

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우디는 혁신적인 백신기술 개발 및 현지 제조 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의학을 위한 국가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분석 플랫폼 등을 주요 분야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아제약은 올해도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랍헬스 2024’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아제약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아 세피지 앰플 등을 선보이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조아 세피지 앰플’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조아제

약의 설명이다.

조아제약은 세계 3대 할랄 인증 기관인 인도네시아 ‘무이’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한 수출용 ‘잘크톤 스텝1’, ‘잘크톤 스텝2’ 등에 대한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조아제약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할랄 시장 공략에도 나선 것이다.

조아제약은 지난 2010년부터 아랍헬스, 두바이 식품박람회 등 해외 현지 전시회에 매년 참가해 신규 시장 개척의 성과를 이뤄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현지에서 상담

을 진행한 바이어사 중 다수로부터 세부 정보 전달 및 협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및 아프리카 제약 산업은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 증가, 서구식 식습관 보편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만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중동 시장 특성에 맞는 자양강장제, 성기능 강화 제품,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아제약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도 갖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은 전 세계 거점 지역에서 각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백신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인 G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의 발을 올렸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공시한 ‘2023년 4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이 미래 성

장 동력임을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3년 매출액은 3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영업손실액은 12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엔데믹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외 시장을 진출을 강화해 자체 개발 백신의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상 유전체분석 전문기업 GC지놈도 중동 시장을 정조준한다. GC지놈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 동안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전시회 ‘메드랩2024’에 참석했다.

GC지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중암 조기 발견 및 선별이 가능한 ‘아이캔서치’를 비롯해 GC지놈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와 품목을 선보였다.

GC지놈 관계자는 “올해 3번째 메드랩 참가를 통해 암 관련 품목 수요 증가, 유전자 검사 대중화 등 중동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체감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KT&G, 연 매출액 5.8兆…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 발표
해외결련 사업부문서 실적 견인
NGP 견조한 매출수량 증가세 지속

KT&G가 7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3년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KT&G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512억원, 영업이익은 1986억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5조8724억원, 영업이익은 1조167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해외결련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이 1조1394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연간 실적을 견인했다. 해외결련을 포함한 NGP(차세대상품)·건기식 등 3대 핵심사업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1% 증가한 3조 3127억원이었다.

국내의 NGP 사업부문의 견조한 매출수량 증가세도 지속됐다. 연간 해외 스틱 매출 수량은 82.4억 개비, 국내 스틱 매출 수량은 57.1억 개비로 전년 대비 각각 43%, 14.4%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해외법인 중심의 글로벌 결련 판매 호조와 해외 NGP 스틱 매출수량 고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담배 수량은 614억 개비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600억 개비를 돌파했다.

건기식 사업부문도 해외 매출 확대에 따라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연간 건기식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조3938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164억원으로 전년 대

비 32.6% 증가하며 매출액 성장률을 상회했다.

이날 KT&G는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3개년(2024년~2026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하는 첫 해로 오는 16일 보유 중인 자사주 350만주(약 3150억원 규모)를 소각한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 즉시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사회는 2023년 결산배당금을 4000원으로 결의했다. 반기 배당금 1200원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200원 인상된 주당 5200원이 될 전망이다. 최종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노르웨이 국가입찰로 시장 확대

램시마SC·유플라이마 낙찰

셀트리온이 북유럽에서 셀트리온의 약품의 처방 확대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국가입찰에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맵)와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맵)가 각각 낙찰돼 노르웨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두 제품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노르웨이에 공급한다.

노르웨이는 국영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운영되며, 대부분 국가입찰 방식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 약가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설명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램시마SC와 유플라이마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플라이마 모두 현지 법인에서 직접판매(직판)한다.

노르웨이 정부 및 현지 의료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두 제품의 실제 처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근거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노르웨이 인접 국가에서도 셀트리온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북유럽 전역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콜마비엔에이치 “글로벌 건기식 ODM 최고 공급자 될 것”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콜마비엔에이치가 지난 20년의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의 발전을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6일 서울 서초석오빌딩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사진)를 비롯해 콜마비엔에이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 하지 못한 400여 명의 직원들도



세종, 음성사업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단독 체제 원년이다.

윤 대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기식 ODM 넘버 원 공급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그는 “콜마비엔에이치는 창립 20년 만에 국

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끄는 ‘헬스 앤 뷰티 토틸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됐다”며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엔에이치는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영업 경쟁력 확보 ▲ESG 경영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ODM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04년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합작으로 설립한 연구소1호 기업이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 ADC 치료제 위탁개발 협업

(항체약물접합체)

레고캠바이오와 신규 계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레고캠바이오 사이언스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ADC 대표 주자로 꼽히는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캠바이오)와 위탁개발(CDO)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

해, ADC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항체 개발에 참여한다.

세종주 개발부터 임상물질 생산 전반에 걸쳐 CDO 서비스를 레고캠바이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 GRAND OPEN 2024.02.08

OPEN EVENT
02.08 - 02.28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5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에 초대합니다.

INFO

영업시간

평일 | 11:00 - 20:30
주말/공휴일 | 10:00 - 21:00
* 설날 당일은 휴점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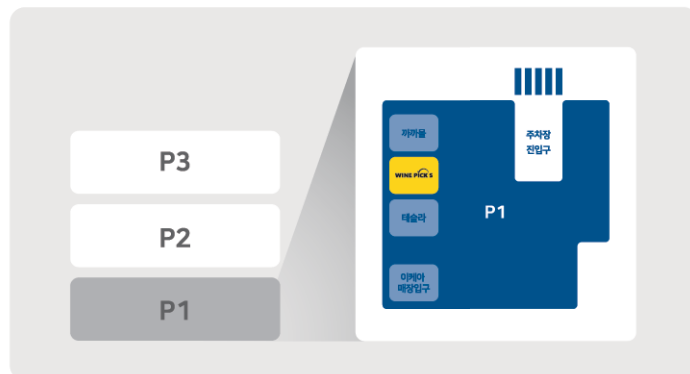


TEL

02-899-4777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P1 주차장





한미약품, 온기창고 1호점에 벌꿀 전달

식품 성장과 번식에 핵심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개체 수가 최근 급감하면서 생태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비-해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비-해피’ 활동을 통해 양질의 벌꿀 250병(1병당 450g)을 생산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 꿀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온기창고 1호점’에 전달됐다.

/한미약품



이마트24, KBS N과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편의점 이마트24와 KBS N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BS 미디어센터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24와 KBS N은 이번 MOU를 통해 ▲협업상품 개발 ▲상품과 서비스 연계한 공동 마케팅 진행 ▲양사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프로모션 진행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마트24



코스콤, 설 맞이 ‘명절 음식 꾸러미’ 나눔

코스콤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코스콤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와 안양시, 부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대상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명절 음식 꾸러미’ 등 설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코스콤



중소사랑나눔재단, 참전용사 등에 떡만둣국 키트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7일 전국 복지시설 263곳과 참전용사 1000가구를 대표해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5만 3000명분의 떡만둣국 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 떡만둣국 대용량 키트는 떡국떡, 만두, 소고기, 찹소면 등 4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양으로, 1300박스를 제작해 장애인, 노인, 아동 시설에 전달했다.

/중소사랑나눔재단

링크웨어, 전기차 전용 필름 할인 행사

링크웨어가 오는 3월7일까지 전기차 전용 PDL C 필름 ‘칼트윈 ACTIV’ 모델을 대상으로 행사를 펼친다.

이번 프로모션은 ‘칼트윈 ACTIV’를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프리미엄 블랙박스‘아이나비 QXD1’과 테슬라 전용 핸드폰 거치대 ‘커브드 V4.5’를 추첨을 통해 무료로 증정한다.

차량 전체에 칼트윈 QS 틴팅을 시공하는 고객은 5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연운열의 푸드톡톡

메디푸드(Medifood)는 우리나라 식약처의 식품공전 분류상 특수 의료용도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결핍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으로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일반인과 다른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북미와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디푸드의 성분을 보면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물질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상 연구 결과

메디푸드의 현재와 미래

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메디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빠른 고령화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메디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보건식품 및 기능성 식품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메디푸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메디푸드의 성장배후에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진행 속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손쉽게 영양 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 역시 늘어난 것이다. 수술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메디푸드를 공급하게 되었다.

정부는 보건으로 육성정책으로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발표한 국내 5대 유망식품 중 메디푸드를 선정하였다.

메디푸드는 국내생산도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메디푸드 수입액은 317만달러로 2017년 187만달러에 비해 69% 늘었다. 글로벌 메디푸드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세계 메디푸드 시장 규모는 전년(74억달러) 대비 4.1% 증가한 78억달러로 집계됐다. 2017년 67억달러와 비교하면 16.3% 증가했다.

향후에도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7.95%가량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국내 메디푸드 유통 채널은 ①병

원대리점·직거래 ②온라인·홈쇼핑 ③대형마트·슈퍼 등 크게 3개 채널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유통채널인 대리점 채널 중 병원·요양원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온라인·홈쇼핑 채널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영업 활동으로 성장세에 있다.

메디푸드 시장의 성장은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 푸드테크 신기술의 활용, 정부의 지원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메디푸드 제품의 종류는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되었다. 표준형 제품은 일반적인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제품이고, 맞춤형 제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태에 맞는 영양소를 조절한 제품이며, 식단형 제품은 환자의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이다.

/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CGV, 오픈하이머 등 ‘아카데미 기획전’ 상영

국내 미개봉작도 다수 포함 전국 15개 아트하우스 선배

CGV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16편의 작품들을 상영하는 CGV 아트하우스 ‘2024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3월 10일(현지시간) 열린다.

CGV아트하우스 ‘2024아카데미 기획전’에서는 ‘오픈하이머’, ‘바비’, ‘추락의 해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플라워 킬링 문’, ‘티처스 라운지’, ‘엘리멘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터널 메모리’ 등 기개봉작부터 ‘가여운 것들’, ‘로봇 드림’, ‘메이 디셈버’, ‘바튼 아카

데미’, ‘퍼펙트 데이즈’, ‘패스트 라이드’ 등 국내 미개봉작도 상영돼 영화 팬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으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1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올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됐다. 전 세계에서 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흥행작 ‘바비’, 쥘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는 제7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과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은 20세기 초 석유로 갑작스럽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 오세이지족 원주민들에게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진투자증권

젊은 예술가 발굴 첫 전시회

유진투자증권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함께 젊은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Space Eu-Bloom with Hongik’의 첫 번째 콘텐츠인 ‘미지근하게 식어가는’ 전시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유진투자증권 캠퍼런스 라운지금용센터 1층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미술대학원 출신 네 명의 작가(변미경, 이해진, 최애림, 한윤제)가 2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인사

◆울산시 남구 ◇6급 전보 △감사관 박두남 △환경관리과 이태하 △삼산동한성철 △아음장생포도 김혜정 ◇6급 파견 △행정안전부 유혜영 ◇7급 전보 △관광과 금동호 ◇8급 전보 △건강행복과 배민지

부음

▲이종성씨 별세, 이경호(두산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수석)씨 부친상 = 7일, 춘천 강원대학교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4-5611

▲김병욱씨 별세, 김민교(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리스크관리부 부사장)·지은씨 부친상, 전북남씨 남평상, 황정화·윤은경씨 시부상, 이상일씨 장인상 = 6일, 경성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8일, 장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선영.

▲조정자씨 별세, 권동혁(전주시의회 공보팀장)씨 모친상 = 6일 오후 9시, 전남 여수시 여천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8일 오전 10시, 061-685-4444



왼쪽부터 강성욱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재근 KB국민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열 남성사계시장 상인회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이사,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김성욱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하나증권 등 전통시장 나눔활동 실시

금감원, 생필품 취약계층 전달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하나증권·신한라이프·우리카드 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공동으로 마련한 후

원금 총 5000만원으로 떡·과일·견어물 등 생필품을 구입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통시장 나눔 활동에 함께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예술가라는 존재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하게 예우한다는 한국외국인 예술가들의 오대산 발언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우리네 삶의 질을 높이는 존재로 (예술가들) 대우하기에 금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부럽다. 한국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량(閑良)에 준한다. 사회적 신분은 그저 그렇고 지위 역시 불안정하다. 아직도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발적 무직자' 정도로 본다. 가난하게 살면서 쓸모없는 일을 하는 부류로 단정하기도 한다.

가난한 건 맞다. 남들의 두어 달 월급이 연간 수입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 (2021년, 14개 예술 분야 5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86.6%에 달했다. 연간 평균 수입이 755만원에 불과했다.

가난한 건 분명하나 예술가들이 낮고 있는 건 아니다. '스타벅스'엔 감히 갈 수 없으나(국민의힘 한동훈·장예찬과 같은 천박한 계급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건 사치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무던히 애쓴다.

녹록하지 않다. 누구나 제프 쿤스(Jeff Koons)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 좀 벌겠다고 미술시장을 기웃거리지만, 괴롭다. 미적 신념은 무너지고 심적 체제의 붕괴를 느낀다.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고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현실은 쓰다. "팔기 위해 만들지 말고 만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야속하다. 예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나'라는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만든다.

모든 게 어렵다. 선택은 쉽지 않다. 예술가로서의 삶과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병행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한다. 배짱이 같은 존재라

고 폄하해도 그림을 그리고 작업이란 것을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따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일부는 예술이 다른 분야처럼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인간의 경험과 감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술가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는 창조적 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안다.

예술가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는 존재다.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와 사회의 진화에 기여한다. 그들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처럼 예술가는 문화적, 정서적, 지적 발전에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 작품을 통해 구성원 간 공감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기여자로서 위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꽤나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독려해야 옳다. /미술평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운’ 시작



김 지 수 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최근 정부는 증시 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도 증시 개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달리 국내 증시는 '연초 효과'도 받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더욱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이었다.

한국 경기에는 '카운트다운'이 울리고 있다. 돌과구를 찾아야 할 시점에서 정부가 주목한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보여진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견고

있다. 1400만명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생존에도 국내 증시가 투자 매력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전 세계 주요 45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이다. 국내 주식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주주 가치 인식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하자 상장사들은 자사 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를 2600선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명절 시즌으로 인한 숨고르기 장세의 기미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로 전환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유행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당부를 신중히 반영해야 한다. 2차전지와 같은 저PBR 테마주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아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우려의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의 제도 개선이 먼저나, 상속세 규제 완화가 먼저냐는 대립부터 다양한 제도 개선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까지 시행될 수 있는 규모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필자는 포퓰리즘을 염두한 단기적인 카드가 아닌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8일 (금 1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재성에 흉살이 있으니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48년생 침착하게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때다. 60년생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도 신뢰의 줄을 끊는 것이다. 72년생 화합을 하니 일도 수월하다. 84년생 남에게 싫은 소리가 어렵다.



소

37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눈높이를 낮춰 생활할 때, 49년생 방심하여 산재 사고 나느니 일도 주의를 하자. 61년생 여마살이 동하여 지방 출장 수가 있다. 73년생 정겨운 대화로 연인의 사랑을 확인할 기회이다. 85년생 고개를 숙여라.



호랑이

38년생 사업가의 생명은 신용을 지키는 것이다. 50년생 동업자와 화합이 되어 일이 순조로운 하루가 된다. 62년생 일의 마무리가 될 댔 상태이니 새로운 계획은 내일로. 74년생 선배의 조언을 경청. 86년생 남편이 자영업을 한다는데.



토끼

39년생 새로운 일의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51년생 오늘은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일하라. 63년생 기회는 왔을 때 잡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75년생 잠재돼 있던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 인정을 받으려 하자. 87년생 좋은 출발이 기대.



용

40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52년생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면 매사 평온하다. 64년생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76년생 새로운 이성을 만나 사랑이 주위를 맴돈다. 88년생 마음의 평정을 이루자.



뱀

41년생 대인관계에서 마음을 총게 먹어야 적이 없다. 53년생 모든 피성을 조심해야. 65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는 시기. 77년생 일시적 감정이 도를 벗어나 체면을 깎일 수 있다. 89년생 새로운 모임과 인연 만남 자체.



말

42년생 서로 격한 언쟁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다. 54년생 독존적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손해난다. 66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는 법이다. 78년생 지출과다를 잘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90년생 주식의 이익만 보면 위험.



양

43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이다. 55년생 갑자기 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67년생 말실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다. 79년생 무언가를 새로이 준비하는 날. 91년생 이직문제로 아침부터 배우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원숭이

44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56년생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건강의 요소다. 68년생 신세를 진 사람의 빛은 꼭 갚도록 해야 일이 생긴다. 80년생 매사에 긍정의 마음이 행운을 부르는 출발이 된다. 92년생 이사로 고민.



닭

45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날이다. 57년생 들뜬에 거친 바람이 부는 격이니 마음잡기 어렵다. 69년생 기분 변화의 기복이 큰 하루. 81년생 인내로 주변과 다투지 마라. 93년생 동료와 뜻을 맞추니 보람찬 하루이다.



개

46년생 열드려 잘 받기 식의 형식적인 대접은 사양하라. 58년생 기쁨은 사물보다 내 안에 있음을 알자. 70년생 내가 심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남을 쉬게 한다. 82년생 조화를 갖자. 94년생 부치는 무리한 일의 진행은 몸 상태 허탈길이다.



돼지

47년생 삶을 뒤돌아보는 시기다. 59년생 즐거움 마음이 건강 유지의 촉진제가 된다. 71년생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나갈 때다. 83년생 이성과 만나는 날이니 감정 조절을. 95년생 쇼핑가서 이것저것 사느라 돈 낭비하지 말고 적금을 들여라.

김상회의四季

보시와 공덕



복지센터에 해마다 몇천만 원씩 가져다 놓는 사람, 작은 가게를 하면서 역대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종종 듣는다. 자기도 살기 힘들면서 어려운 사람의 손을 선뜻 잡아주는 사회의 의인이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평생 10조 원의 돈을 기부한 세계적 부호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호이면서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았고 죽기 전까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한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선행이다.

이런 선행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와 같다. 무주상보시는 남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한 톨의 자만한 마음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남을 위하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보시이다. 상담을 청하는 분 중에는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경우가 늘 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은 없을지 궁금해하고 운세가 잘 풀려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묻는다.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한없는 부모 사랑을 느낀다. 자녀들의 운세는 사실 미래의 일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금 대처할 방법은 딱히 없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공덕을 쌓는 것이다. 내가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은 자녀들의 운세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녀들에게 다칠 액운을 막아주거나 복을 끌어 온다. 손쉬운 공덕 쌓기는 내 주변 둘러보기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기부자들이 공덕의 힘을 바란 것은 분명 아니다. 애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앞섰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처럼 커다란 마음을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내는 것, 그런 마음이 앞길에 원만한 운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69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시민 라이프스타일 혁신사업 가동

“숲·공원 녹색공간서 취미 즐겨요”

공원과 음악·미술 콘텐츠 융합해
공연, 그림그리기 등 프로그램 운영
향수 불러일으키는 사진 공모전도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공원에서 다
채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가든
투어, 소규모 음악회, 드로잉, 사진 전
사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12월
까지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목
표로 ‘예술품은 매력정원’ 사업을 가동
한다. 이 사업은 공원·산림에서 오프라
인 여가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 수요에
맞춰 마련된 프로젝트다. 공원의 스토
리와 융합하는 음악·미술 콘텐츠를 개
발해 선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녹색 공간에서의 여
가 활동을 선호한다”면서 “또 여가 지
출 비용이 증가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
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원여
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서울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사진은 기
사 내용과 관계 없음) / 김현정 기자

예술품은 매력정원 사업의 주요 프
로그램은 ▲매력가든 투어 ▲음악이
흐르는 정원 ▲미술이 펼쳐지는 공원
▲공원 속 추억 전시이다.

매력가든 투어는 공원의 테마를 발
굴해 스토리를 입힌 서울공원 여행 프
로그램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8월 휴지기 제외)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재활용생태공원인 선유

공원의 풍경을 탐방하고 요가를 즐기
는 ‘선유요가’, 낙산공원의 역사적 공
간을 둘러보는 스토리 투어와 전통 공
연이 결합된 ‘낙산풍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이 흐르는 정원은 봄·가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음악회와 서커
스 공연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4~5인조 음악 그룹을 선정해 공원별
순회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술이 펼쳐지는 공원은 그리기 도
구와 돛자리를 빌려주고 그림 그리기
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공원의 스토
리와 어우러지는 음악을 들으며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녹지 곳곳에 음향장
비도 설치한다.

공원 속 추억 전시는 서울의 공원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공모전을 여는 내용으로 운영된
다. 올 11월 서울시내 공원에서의 추억
이 기록된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우이신설선 방학역까지 연장… 내년 착공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서울시는 이달 6일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우이신설연
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
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작
년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
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전문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 기본계
획을 승인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
선을 연장하는 프로젝트다. 솔밭공원
역에서 분기해 1호선 방학역까지 총연
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
설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서울의 대
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인 도봉구 방학

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이라며
“주택 고밀 지역임에도 도시철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
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장선 개통 후 신설동역에서 솔밭
공원역까지는 첨두시 약 3분 시격으로
운영된다. 솔밭공원역~북한산우이역
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시격으
로 운행하게 된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
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1
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환
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으
로 거듭난다. 현재 환승역은 신설동역
(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
역(4호선) 3개소이다. 공사 후에는 솔
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
선) 2곳이 추가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과천시민도 쓴다

서울-과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
경기 남부권 연결… 수도권 확대 박차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정기권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가 함께한다.
과천은 서울시와 경기 남부 지방자치
단체 간 길목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과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 남부 주민
의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
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
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과천시 기후동
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
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양 도
시 간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계기로 두 도시는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선바위, 경마
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
기 위해 해당 역사의 운영 기관인 코레
일과 협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다. 과천시의 일평
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2만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과천을 오
간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
위에 군포 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역
을 추가했다. 여기에 4호선 과천 구간
이 포함되면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
에 보답하고자 인근 수도권 지자체 지
역으로의 서비스 확대 검토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와 차례로 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이 밖에 다른 기초 지
자체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와 과천
시,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인접 지자체
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소방관 45% 트라우마 경험… 전문치료 필요

한림대강성심병원, 소방관 조사
74%, 트라우마 치료해본 적 없어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 개발

업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
방관이 전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 84%는 소방관 전문 트라
우마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화상전문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
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은 2023년 5월 11
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간 서울소방
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1057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업무로 인해 트라우마
를 경험한 소방관은 45%(477명) ▲트
라우마를 치료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
던 소방관은 74%(354명) ▲소방조직
내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
다고 느낀 소방관은 65%(682명) ▲소

방관 전문 트라우마 치료 개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소방관은 84%
(883명)에 달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PTSD와 관련된
키워드로 심폐소생술(CPR), 출동벨소
리, 사고, 기억, 현장, 출근, 부상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림대학교한강
성심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은 소방관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부터 10월까지 소방관 대상 트라우마
전문 치료 프로그램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를 개발했다. 이후 현재
까지 서울 소재 소방관 18명을 대상으
로 무료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다. 세션 1은
이병철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정신
건강의학과장이 ‘예측하는 기능으로서

의 뇌와 트라우마의 극복’을 주제로,
소방관이 불길이나 사망 등으로 트라
우마를 경험한 후 변화된 환경과 몸 상
태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습득
하게 돕는다.

세션 2는 황세희 한림화상재단 사무
과장이 ‘신체감각치료 기반 정서조절
치료프로그램’을 주제로, 소방관이 트
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심신안정화
방법을 내재화해준다.

세션 3은 권승진 한림대학교한강성
심병원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처리 치료프로그램’을 주제로, 소
방관이 PTSD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
록 돕는다. 세션 외에도 자율신경계 정
밀검사, 트라우마 최적화 중재 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파주임진각 곤돌라 탑승객 160만명 돌파

방문객 상승세… 설 연휴 정상운영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가 2020년 3
월 첫 운행 후 3년 9개월 만에 탑승객
16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
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에
만 51만 4,000명이 다녀갔다.

타 시군 케이블카 탑승객이 일부 감
소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파주디엠지
곤돌라는 ▲20년 28만 5,230명 ▲21년
41만 2,340명 ▲22년 44만 2,710명 ▲
23년 51만 4,050명이 방문했다. 특히,
23년 기준 전년 대비 116.1%의 상승률
을 기록했다.

임진각평화 곤돌라는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을 위해 휴무 없이 정상 운영
된다. 80세(1945년생) 이상은 무료 탑
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10일(토)
과 11일(일)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디
엠지(DMZ) 탑승장(북쪽) 1층에서 역
사와 문화, 전통을 느끼며 즐길 수 있
는 전통 민속놀이 무료 체험마당도 운
영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민주당 네바다주 경선서
승리 /사진 뉴시스
▲아마존, 이번엔 의료·약국 사업 부문
서 수백명 감원

▲EU, 기후중립산업법 3차 협상 잠정
타결
▲독일, 극우정당 ‘AfD’ 청년조직 정부
감시 허용



▲ 대만 대륙위 “중국 경찰풍선으로 인
지전 강화”
▲러시아, 우크라 전역에 대규모 공습
/사진 뉴시스



손쉽고 빠르게
집밥 ‘뚝딱’
K-소스 글로벌 공략
L1



Life

K-제약·바이오
중동·북아프리카
흐름에 발 맞춘다
L2



귀성길 9일 오전 가장 막힌다… 서울~부산 9시간 10분

국도교통부, ‘특별교통대책’ 시행
귀경길은 설 다음날 오후 집중 예상
연휴기간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올해 설 고속도로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이 9시간10분가량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9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달인 11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명, 하루 평균 57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92%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최대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 9시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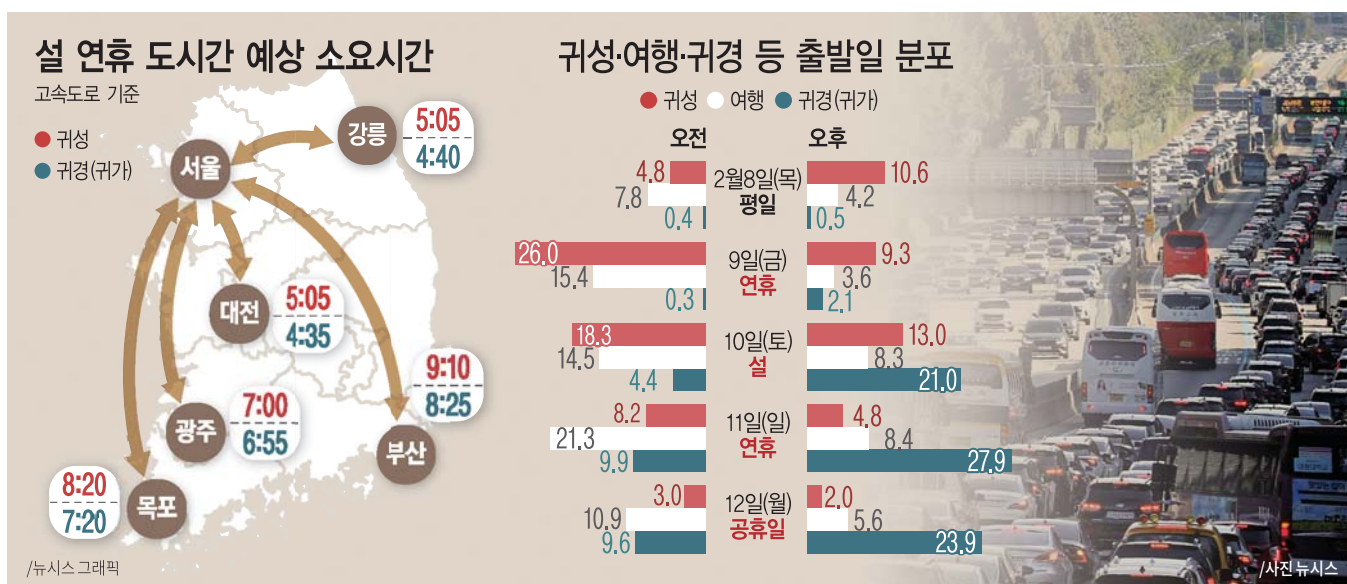
분, 서울~목포 8시간20분, 서울~광주 7시간, 서울~강릉 5시간5분, 서울~대전 5시간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의 경우 부산~서울 8시간25분, 목포~서울 7시간20분, 광주~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이 4시간40분, 대전~서울 4시간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설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10일)과 설 다음날(11일)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51.56km)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1 등 2개 구간(3.4km)을 임시 개통한다.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한다.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92km) 및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10개 노선 24



개 구간(60.0km)을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 사이에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서울·인천·부산 등에서는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심야 연장 운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3000원 이하인 중저가 간식

3~5종을 포함한 알뜰간식 10종이 판매된다. 묶음 간식도 최대 33% 할인판매된다.

오창(남이), 치악(춘천), 음성(하남) 등 11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9기) 서비스가 무상 운영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손보사, 차량 무상점검… 귀성길 안전 ‘체크’ “신권 찾아가세요” 은행 10곳 이동점포 운영

특약 미가입 고객도 기본점검 제공
차량 고장, 사고 후 대처 요령 공유
노후 차량일수록 반드시 점검해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귀성길 장거리 운전자를 위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모두 살펴보는 만큼 반드시 시간을 내서 거주지 인근 정비소에 방문하라는 조언이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오는 8일까지 전국 프로미카월드 275개점에서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에는 25가지 점검과 함께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가지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전국 매직카 서비스 점을 통해 14가지 항목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클러치실린더 ▲주차브레이크 등이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귀성길 장거리 운전자를 위해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뉴스시스

면 상시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국 애니카랜드 500여곳에서 안전 관련 항목 20가지를 점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해상 또한 명절맞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차량 고장 및 사고 후 대처 요령도 공유했다. 가장 먼저 가입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에 연락해야한다. 이어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역으로 신속

히 대피하라는 설명이다. 인명사고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도 함께 연락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 혹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밀접한 서비스는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도 제공하고 있다”며 “노후 차량일수록 사전 점검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귀성객 편의 위해 휴게소 점포 열어
신권교환 등 간단한 은행업무 지원

설 명절을 맞아 귀성하는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은행 10곳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입·출금 거래는 물론 신권 교환도 가능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10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경남)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설날 연휴 첫날인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KB 찾아가는 브랜치(Branch)’(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과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일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 이동점포 ‘뱅크드’를 설치한다.

같은날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각각 경부고속도로하행선양재만남의광장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하나·우리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협은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경남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안휴게소(순천방향)에서, 부산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운영한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8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덕평휴게소(인천방향)에서, 광주은행도 같은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읍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대구은행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4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명휴게소(춘천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며 “설 연휴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클린스만 잔류 발언에 한준희 “분석 대상은 클린스만 자신”
▲클린스만호, 8일 귀국…유럽파는 소속 팀 복귀
/사진 뉴스시스

▲프로농구 ‘비신사적 행위·KBL 비방’ 현대모비스 프림에 제재금 230만원
▲KPGA투어 2024시즌 4월11일 개막전…총 22개 대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 임대 이적
▲SSG 새 외인 투수 더거, 첫 불펜 투구…최고 151km ‘광’
/사진 뉴스시스

SAMSUNG

Galaxy S24 Series

Galaxy AI ✨ is here



samsung.com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